

정인화 광양시장, 교통·산업 현장 소통행정 '동분서주'

매화축제 주차장 추가 검토지 등 4개소 방문 신산업 대규모 투자 대비 산업용지 확보 지지

정인화 광양시장이 관내 산업·교통·관광 현장 점검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소통행정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인화 시장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4월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가졌다.

이날 정 시장은 ▲신규 산업단지 검토 후보지 ▲진월IC·내망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망덕포구 데크 정비공사 ▲매화축제 주차장 추가 조성 검토 등 현장 4개소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이차전지, 수소 산업 등 신산업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검토 후보지를 찾아 사업 면적, 추정 사업비, 조성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산단 조성 후보지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교통 여건·산업 인프라 접근성, 산지 절취 규모 및 경사도, 주민의 이주 규모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다음으로 진월IC·내망마을 앞 회전교차로 신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8일 매화축제 주차장 추가 조성 검토지 등 교통·산업 현장 4개소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양시 제공>

황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해당 도로가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만큼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충분한 도로 폭 확보와 차로 확장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도시 미관을 고려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교통섬에 소나무 등 상록수 식재를 지시했다.

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최근 물류·산업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진월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데크로 교체 중인 망덕포구 데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1단계 사업 완료 후 자체 품질 시험의뢰 현황에 대해 상세 보고를 받고 데크길을 걸으며 재질·시공 상태를 점검했다.

끝으로 올해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인 매

화축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 검토 현장을 방문해 부지의 토양 상태·교통난 해소 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인화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방법은 시민의 삶이 녹아 있는 현장에서의 소통 뿐"이라며 "갑진년의 1분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올해 시장 운영의 구호인 '신심직행(信心直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며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 민생 의결수령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순천만 습지에서 월동을 마친 흑두루미가 번식지로 복상 준비를 하고 있다. 순천시 서식지 보전 노력에 매년 흑두루미 방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 마치고 모두 복상

월동 흑두루미 전년비 41% ↑ ...서식지 보전 노력

순천시에서 월동을 마친 흑두루미가 모두 번식지로 복상했다.

순천시는 10일 "지난 7일 순천 시조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마치고 모두 번식지로 복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순천만에서 월동한 흑두루미는 7천239마리이며 지난해 보다 41% 개체수가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1월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순천만으로 역유입 했던 흑두루미 중 절반가량이 3천여마리가 지난해 가을, 일본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천만에서 월동한 것으로 보인다.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가는 이동시기에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흑

두루미도 8천600마리로 조사됐다. 국제 두루미재단은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과 한국 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늘면서 대대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뿐만 아니라 별량면 학산들, 해룡면 상내들 등 순천만 인근 농경지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어싱길과 순천만 탐조대는 흑두루미 탐조 거리가 70~80m로

가까워지면서 숙박과 연계한 탐조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됐다.

시는 올해부터 크고니, 황새 등 순천만 조류의 종다양성 증진을 위해 세심 매지기 복원, 무논 조성, 농경지 내 환경저해시설 철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 탐조 신동선을 개발해 체류형 고품격 탐조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만 갯벌에는 알락꼬리마도요, 민물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도요 물떼새들이 도착하고 있으며 갈대 새순이 올라오면서 초록빛 생명의 싱그러움이 더해지고 있다. /순천=정기자

곡성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

지역 기업 3곳·최대 5천만원 지원

곡성군은 10일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지역 내 기업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타·시·도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활용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 조사 활동을 위해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며, 1차 사업화 과정 지원으로 최대 2천만원 지원, 2차 고도화 지원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수시에 위치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2월 열린 '3차 고도화 지원 선정 평가'에서는 지역 내 청년기업 6명이 참여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 및 판매 사업,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2차 사업화 지원금의 집행 결과와 성과, 사업장의 상태 등을 검토했으며,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3차 고도화 지원의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 자원을 통해 선정된 관내 3곳의 기업은 곡성군의 특산품인 토란을 활용한 초콜릿을 제작·판매하는 김재천 씨의 '초코러니', 전남 지역의 쌀을 활용해 만든 지역 특산주 신장업씨의 '두드브루어리', 귀농귀촌인을 위한 양심 집짓기 최영호씨의 '곰곰한 영호씨'가 선정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금, 멘토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선 지원은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성군의 봄 풍경. <장성군 제공>

장성 봄꽃축제 볼거리 '풍성'

20-21일 산동리 유채꽃 축제·내달 길동무꽃길축제

장성군이 화사한 봄꽃과 음악, 개성 넘치는 체험으로 가득한 축제를 마련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진원면 산동리 일대에서 '유채꽃축제'를 개최한다. 마을 입구부터 이어지는 1.2km 구간 유채꽃밭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다. 승마 체험, 유채꽃 체험부스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즐길거리도 많다. 난타 공연, 마술쇼, 풍선아트, 풍바, 현장 노래방 등 방문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한다.

봄꽃축제는 오는 5월24-26일 '길동무꽃길축제'로 이어간다. 올해는 옛 공설 운동장 부지를 '황룡정원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한 점이 눈에 띈다. 물빛 공연장 음악분수 앞에 무대를 만들고, 잔디광장은 부채꼴 모양으로 '피크닉 관람석'을 설치하고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코스모스,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 알록달록한 봄꽃도 풍성하게 피어난다. 황룡강변 3.2km 구간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올해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비치하는 '북 캠프닉'을 계획 중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변화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주말인 20일 늦은 오후까지 다양한 음악인들의 연주가 귀를 즐겁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음악축제' 콘셉트를 길동무 꽃길축제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아름다운 봄꽃과 매력적인 즐길거리가 가득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올해 처음 열리는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와 새로운 변화에 나선 길동무 꽃길축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팡파르

내일부터 이틀간 수북면사무소 광장 일원

담양군 수북면은 10일 "제1회 민민의 날을 맞아 12-13일 이틀간 수북면사무소 광장 일원에서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몽성산은 수북면과 대전면 경계에 자리하며 사람 인(人)을 3개를 겹쳐놓은 모양새로 삼인산(三人山)으로 불린다.

이성계가 전국의 명산을 찾아 기도

하던 중 꿈에 삼인을 찾으라는 성몽 끝에 담양의 삼인산을 찾아 제를 올리고 기도해 왕위에 등극하게 되자 몽성산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이런 설화를 가진 몽성산을 새롭게 부각시킬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축제 첫날인 12일 오후 5시30분에는 전야제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는 동치

미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홍림의 사회로 트로트 가수 진이랑과 퓨전양상을 불량이 무대를 채우며, 주민노래자랑 예선이 펼쳐진다.

13일에는 이날치 기념비 이전 제막식과 이날치 계승 명창 공연, 국관종 장학금 전달식 있을 예정이며 고재중 작사, 이현성 작곡의 '수북의 노래'를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 수제비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손 마사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구례 오백축제에 놀러오세요"

13일 구례 5일시장 일원서 개최

구례군은 10일 "오는 13일 구례 5일시장 일원에서 '2024 구례에서 즐기자 제2회 오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례 오백축제는 구례읍 중심지가 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제지원 프로그램이다.

오백축제는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5일시장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맥주 축제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올해 축제는 가스과 협업을 통해 참여자에게 신선하고 시원한 생맥주 4잔을 2천원에 제공한다. 참여자는 5일시장 내 청년점포 야시장을 이용해 안주 또한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다.

축제 당일 오전 부대행사로 는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고, 오후에는 플라멩코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허명진 5일시장 상인회장은 "축제 참여자들이 전통 시장의 추억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푸짐한 먹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오백축제가 향후 구례 5일시장을 대표하는 야시장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5일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여수시, 벼룩시장 물가 안정 캠페인 실시

건전한 소비활동·착한가격업소 이용 당부

여수시는 "최근 '나눔과 소통의 장' 벼룩시장에서 물가 안정 캠페인을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첫 벼룩시장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 홍보부스를 마련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활동 참여 등 물가안정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

특히 시 공무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한국부인회 여수지회) 20여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으로 물가안정 캠페

인을 펼치며 시민들로부터 동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자원순환



여수시 벼룩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여수=김진선 기자